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4040 Nelthorpe St. Victoria BC V8X 2A1

제15권

2024년 3월 29일(나해)

2024년 <사목목표>-자비의 해

[주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십니다. (시편 86:15)]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3PM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박정수 안드레아 ☎ 613-661-4060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2024년 3월 29일 [(홍)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늘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전례 순서>

▣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13—53,12

▣ 화답송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
-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

○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

▣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4-16; 5,7-9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18,1—19,42

▣ 십자가 경배

성가118번

모 — 두 — 와 ————— 서 — 경 — 배 하 ————— 세 —

▣ 성체 180(주님의 작은 그릇)

성주간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말한다. 예수님이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이다.

이 기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한다. 곧 전례주년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성주간의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해 준다.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날 교회는 미사 전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환영한다는 상징적 행위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거행한다. 성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한 예식이 없다.

성주간 목요일 오전에는 각 교구의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사제들이 모두 모여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한다. 이 미사 중에는 사제들이 사제품을 받을 때 한 사제직에 대한 서약을 공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제 서약 간신’이 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한다. ‘재의 수요일’에 시작한 사순 시기는 이 미사 직전에 끝난다.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고 제대포를 벗긴다. 또한 제대 중앙의 십자가를 치우거나 천으로 가린다. 신자들은 수난 감실에 모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한다.

▶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예식 안내

3월 29일(금)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기도(오후 6시 30분)

-성 금요일 수난 예식(오후 7시)

독서: 원경순 글라라, 김영희 마리나

수난복음: 이석태 요셉, 유현자 글라라

부활 성야 미사 복사 연습: 3월 30일 오후1시

복사 -향 복사-윤지황, 김찬욱

시종 복사-김대현, 김재휘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은 한 해의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삼 일 동안을 말한다. 곧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에 절정을 이루며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19항).

‘파스카’는 본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려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날 밤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맏아들이 모두 죽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에 놀란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탈출 12,1-42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건너감’을 뜻하는 단어인 파스카(Pascha)를 축제 이름으로 삼았다. 이후 파스카 축제는 민족의 잔치로 자리 잡았다.

구약의 파스카는 신약의 파스카인 부활을 미리 보여 준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을 완전하게 현양하는 업적을 이루셨다. 곧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18항).

오늘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부활 대축일 미사 전례 안내

3월 30일(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밤 10시30분-빅토리아)

1독서: 김영희 마리나, 3독서:서승희 안젤라

5독서: 원경순 글라라, 7독서:이석태 요셉

서간: 최대곤 베네딕토

3월 31일(일)-부활 대축일 낮 미사 - 3PM:나나이모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3월 29일 주님수난성금요일	빅토리아	원경순 글라라	김영희 마리나	김대현, 윤지황
	수난복음	이석태 요셉	유현자 글라라	
3월 31일 주님부활대축일	나나이모	테레사 하트	김미나 사라	박지성, 고예은
				이유빈